

“역사학자가 꿈...뛰어난 우리 문화재 널리 알리고 싶어”



2021 으뜸인재 <8> 합평중 2학년 김용건군

‘문화유산답사기’ 초6 때 출간...문화재·도자기 등 책 쓰고 싶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되찾기 목표...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선 우리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해석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를 보러 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애늬은이’ 같은 김용건(14·합평중)군. 유명한 위인들이 당호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역사에게 묻는다’라는 뜻인 사문당(史問堂)을 자신의 당호로 정하고 본인의 공부방 앞에 걸어둘 정도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버릇을 갖다보니 또래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이 자연스러워졌다.

합평에서 자영업업 하고 있는 아버지 김호영(42)씨와 어머니 신복득(42)씨는 이런 아들들

위해 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가게 문을 닫고 박물관을 동행해주고 있다. 그를 이토록 역사에 파고들게 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준 역사만화책이었다. 그 전까지 공룡에 매료돼 있었던 이 어린이는 사마천 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읽으며 사학에 입문했다.

“5학년 때 영재를 발굴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가 적이 있어요.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소개됐는데, 모두들 저같은 어린 아이가 스스로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것에 놀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책만 읽어보고 제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문화재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답사한 뒤 6학년 때 ‘초등학생 김용건이 쓴 문화유산답



방학에는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타헤지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냈던 책을 보완해 제대로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문화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문화재 100선이라는 책도 쓰고 싶어요. 일단 도자기로만 써보고 그 다음 석탑, 그 다음 그림 순으로 해보려 합니다. 도자기 80개를 올해 안에 쓰는 것이

“이런 여름 방학에는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타헤지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냈던 책을 보완해 제대로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문화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문화재 100선이라는 책도 쓰고 싶어요. 일단 도자기로만 써보고 그 다음 석탑, 그 다음 그림 순으로 해보려 합니다. 도자기 80개를 올해 안에 쓰는 것이

“이런 여름 방학에는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타헤지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냈던 책을 보완해 제대로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문화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문화재 100선이라는 책도 쓰고 싶어요. 일단 도자기로만 써보고 그 다음 석탑, 그 다음 그림 순으로 해보려 합니다. 도자기 80개를 올해 안에 쓰는 것이

“이런 여름 방학에는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타헤지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냈던 책을 보완해 제대로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문화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문화재 100선이라는 책도 쓰고 싶어요. 일단 도자기로만 써보고 그 다음 석탑, 그 다음 그림 순으로 해보려 합니다. 도자기 80개를 올해 안에 쓰는 것이

동요계 큰별 이수인 작곡가 별세 ‘동글게 동글게’ 등 650여곡 창작



“동글게 동글게” 등 동요 500여 곡과 ‘고향의 노래’ 등 가곡 150여 곡을 작곡한 이수인씨가 지난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한국동요문화협회가 이날 밝혔다. 향년 82세.

경남 의령 출신인 고인은 서라벌예술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마산성지여중과 마산제일여중교 교사를 지냈다.

1965년 마산 어린이방송국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한국 최초로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었다. 이후 1968년 KBS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시작해 합창단 단장을 거쳤고, 동요작곡가단체인 파랑새창작동요회를 설립했다. 한국동요작사작곡가회 회장으로 지냈다.

고인은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알려진 ‘앞으로’, ‘동글게 동글게’, ‘방울꽃’ 등 500여 곡의 창작동요를 만들었으며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석굴암’ 등 150여 곡의 서정 가곡을 발표해 ‘동양의 슈베르트’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문인협회는 1996년 고인에게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상’을 수여한 바 있다.

고인은 대한민국 동요작곡 대상, 한국아동음악상, 대한민국 5·5 문화상, 제10회 반달동요대상, 제4회 세월한국가곡상 등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콘진원 ‘마음나눔 기부물품’ 나주 아동센터에 전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정경미)은 최근 ‘2021년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통해 모인 ‘마음나눔 기부물품’을 나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적십자, 광주시 버스·개인택시 운송조합에 마스크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건영크린텍-한국도로공사에게 기증받은 마스크를 광주시 버스·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각각 1만매씩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산타클로스 장난감 할인마트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동참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산타클로스 장난감 할인마트(대표 황의승)가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영)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굿네이버스 후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SBS/KBC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코트뉴스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미치지 않고서야(재)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팔도방송(재)	00 경찰수업(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류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크리켓밤 50 뽀빠보 좋아좋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원리 돈해피
0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본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45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0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00 뉴스브리핑
0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재) 30 TV 유치원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0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백중원 클래식(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0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집 내고향 전파(재)
0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07	00 KBS 뉴스 9 55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	50 빨강 구두	00 MBC 뉴스데스크 50 2020 도쿄패럴림픽 개회식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SBS 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
08		30 노래가 좋아		
09		30 경찰수업		
10		40 육탄방의 문제아들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PD수첩	10 집사부일체(재)
12	10 고 장준하 선생 46주기 KBS컬작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사랑의 가족(재)	00 미치지 않고서야(재)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2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코요몽3	12:10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네메시스	19:05 머털도사
07:30 꼬미와 베베	14:30 EIDF 2021 클로즈업 아이콘-슈퍼 에이블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4:55 EIDF 2021 컨템포러리 다큐 파노라마	19:50 극한직업
08:00 당당명 유치원	-식탁에선 울지 않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출동! 슈퍼윙스	15:15 클래스 e	<홈진진 유럽 사진
08:45 방구대장 뽀빠이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신비한 건축 이야기, 이베리아 반도
09:00 뽀뽀뽀 뽀로로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30 한국기행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00 마사와 곰	21:50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09:30 우당탕탕 아이쿠	16:15 개구쟁이 조이	-봉명주공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당명 유치원(재)	23:15 EIDF 2021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10:30 한국기행	16:50 내 친구 몬터이	-그만 좀 하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음 7월 17일 甲辰)

<p>36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48년생 이해득실을 따지지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72년생 중차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84년생 기대했던 것은 이미 풀거품이 된지 오래 되었다. 96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8, 57</p>	<p>42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의지대로만 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66년생 대고는 없으나 공허할 뿐이다. 78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결정 될 경우이다. 90년생 통쾌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02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1, 56</p>
<p>37년생 열린 마음으로 눈의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49년생 조금씩 숨통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61년생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73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85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97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03, 51</p>	<p>43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 되리라. 55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 할 것이니라. 67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79년생 이익이 따를 것이니 무조건 수긍하고 불 일이다. 91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03년생 길정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6</p>
<p>38년생 그 어느 경우에도 일일일단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0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국면을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위축 될 수도 있겠다. 74년생 단편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요구 된다. 98년생 달라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1, 64</p>	<p>32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 받겠다. 44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사소한 일이라면 대범하게 넘어 가자. 68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80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92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23, 94</p>
<p>39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리라. 51년생 구대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63년생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판세에 놓여 있다. 87년생 막힌 것은 말살이지 말고 뚫어라. 99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6, 79</p>	<p>33년생 땀 흘려서 했다가는 갑수욕 화될 수도 있느니라. 45년생 대지 위 초목은 폭풍우를 맞고 강하게는 법이다. 57년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라. 69년생 백해무익한 것에 대한 정산은 빠른수록 좋다. 81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93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행운의 숫자 : 16, 87</p>
<p>40년생 치우친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색 국면에 이른다. 52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64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76년생 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88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 필요하다. 00년생 가볍게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3, 55</p>	<p>34년생 건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46년생 표면화 시킨다면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58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70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2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94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행운의 숫자 : 43, 78</p>
<p>41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르리라. 53년생 감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65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77년생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89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01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81</p>	<p>35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7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59년생 수호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71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지만 하면 궁극적으로 성사 되리라. 83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95년생 정산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9, 92</p>